

2. 시도 공통항목

- 2-1 삶에 대한 만족감 - 1) 자신의 삶
- 2-2 삶에 대한 만족감 - 2) 지역생활 전반
- 2-3 삶에 대한 만족감 - 3) 행복 빈도
- 2-4 삶에 대한 만족감 - 4) 걱정빈도
- 2-5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 2-6 의료서비스 만족도
- 2-7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 2-8 일반인에 대한 신뢰
- 2-9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 2-10 공동체의식 -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 2-11 공동체의식 - 2) 동네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 2-12 공동체의식 - 3) 어려운 일은 서로 잘 돕는다
- 2-13 공동체의식 - 4) 동네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2-14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 임신, 출산, 육아
- 2-15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2)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 2-16 가구 월평균 소득
- 2-1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1) 밤에 집에 있을 때
- 2-1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 밤에 골목길 걸을 때
- 2-1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1) 자연재해
- 2-20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 건축물 및 시설물
- 2-21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3) 교통사고
- 2-22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4) 화재(산불 포함)
- 2-23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5) 먹거리
- 2-24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6) 정보안전
- 2-25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7)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 2-26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8) 범죄위험
- 2-2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9) 전반적인 사회안전
- 2-28 환경체감도 - 1)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 2-29 환경체감도 - 2) 수질(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 2-30 환경체감도 - 3)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 오염)
- 2-31 환경체감도 - 4) 소음, 진동(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 2-32 환경체감도 - 5) 녹지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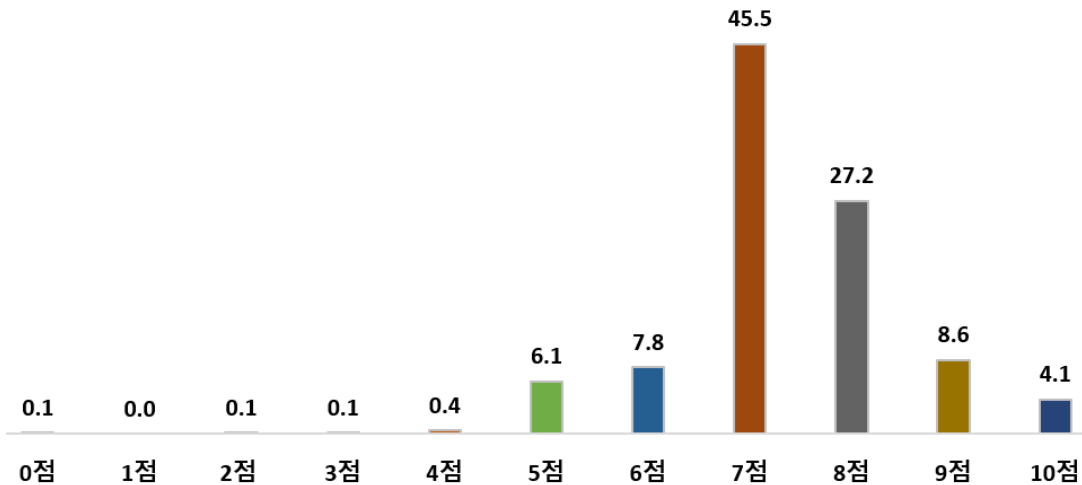
2-1 삶에 대한 만족감 - 1) 자신의 삶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7.3점」

•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는 평균 7.3점으로 2019년(6.7점)대비 0.6점 증가하였으며, 「7점」 45.5%, 「8점」 27.2%, 「9점」 8.6%, 「6점」 7.8%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삶의 만족도는 북부권 7.5점, 중부권 7.4점, 서남부권 7.2점 순으로 나타남.
- 삶에 대한 만족도는 여자(7.3점)보다 남자(7.4점)가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대가 7.5점으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이 7.2점으로 가장 낮음.
-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평균 만족감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삶에 대한 만족감 - 1) 자신의 삶



[표 2-1] 삶에 대한 만족감 - 1) 자신의 삶

(단위: %, 점)

구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017년	100.0	0.0	0.1	0.9	3.2	21.4	17.5	21.7	21.1	10.8	3.2	0.0	6.8
2018년	100.0	0.0	0.6	0.2	0.2	1.3	11.8	25.8	31.3	20.7	5.7	2.4	6.8
2019년	100.0	0.0	0.0	0.1	0.1	2.5	17.4	28.3	23.3	16.7	6.9	4.6	6.7
2020년	100.0	0.1	0.0	0.1	0.1	0.4	6.1	7.8	45.5	27.2	8.6	4.1	7.3
< 지역별 >													
중부권	100.0	0.2	0.0	0.0	0.2	0.7	8.1	6.9	38.9	26.0	13.3	5.6	7.4
북부권	100.0	0.0	0.0	0.2	0.3	0.3	3.8	4.8	51.8	23.1	7.7	7.9	7.5
서남부권	100.0	0.0	0.0	0.0	0.0	0.2	5.7	10.6	47.8	31.0	4.7	0.1	7.2
< 성별 >													
남자	100.0	0.0	0.0	0.0	0.0	0.3	5.7	6.6	44.9	29.4	8.5	4.7	7.4
여자	100.0	0.1	0.0	0.1	0.3	0.5	6.6	9.2	46.3	24.8	8.7	3.4	7.3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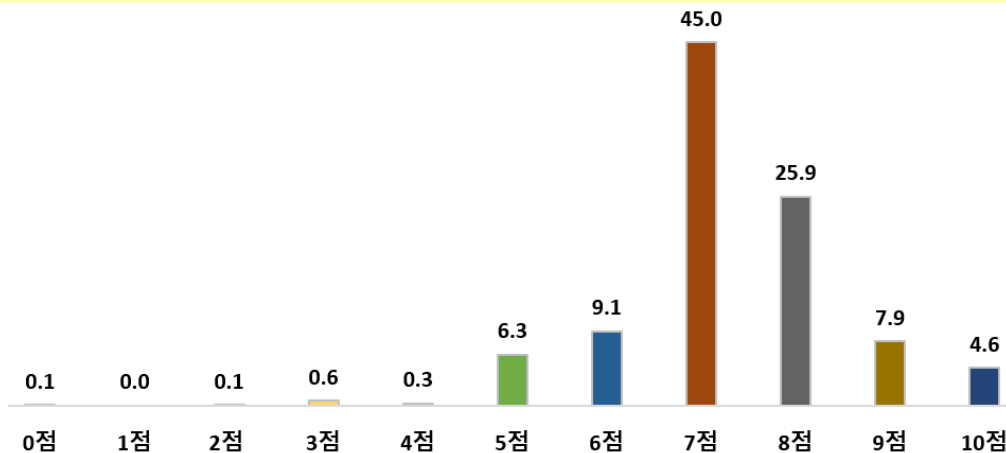
2-2 삶에 대한 만족감 - 2) 지역생활 전반

살고 있는 지역의 만족도는 평균 「7.3점」

- 살고 있는 지역의 전반적인 생활의 만족도는 평균 7.3점으로 「7점」 45.0%, 「8점」 25.9%, 「6점」 9.1%, 「9점」 7.9%, 「5점」 6.3% 순으로 나타남.

- 지역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북부권 7.5점, 중부권 7.4점, 서남부권 7.1점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여자(7.3점)보다 남자(7.4점)가 지역 생활 전반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15~29세가 7.5점으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에서 7.2점으로 가장 낮음.
-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지역 생활 전반의 만족도는 증가함.
- 직업별로 만족도는 전문/관리직 종사자가 7.9점으로 가장 높고, 사무직 종사자가 7.2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삶에 대한 만족감 - 2) 지역생활 전반



[표 2-2] 삶에 대한 만족감 - 2) 지역생활 전반

(단위: %, 점)

구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020년 <지역별>	100.0	0.1	0.0	0.1	0.6	0.3	6.3	9.1	45.0	25.9	7.9	4.6	7.3
중부권	100.0	0.2	0.0	0.0	0.4	0.6	8.5	9.6	37.1	23.8	12.6	7.2	7.4
북부권	100.0	0.0	0.0	0.2	1.4	0.3	3.0	5.0	49.8	25.2	7.7	7.5	7.5
중부권	100.0	0.0	0.0	0.0	0.2	0.0	6.4	11.3	49.7	28.4	3.6	0.4	7.1
북부권	100.0	0.0	0.0	0.0	0.6	0.4	4.9	8.0	46.1	27.5	7.3	5.2	7.4
서남부권	100.0	0.1	0.0	0.1	0.5	0.2	8.0	10.5	43.9	24.1	8.7	4.0	7.3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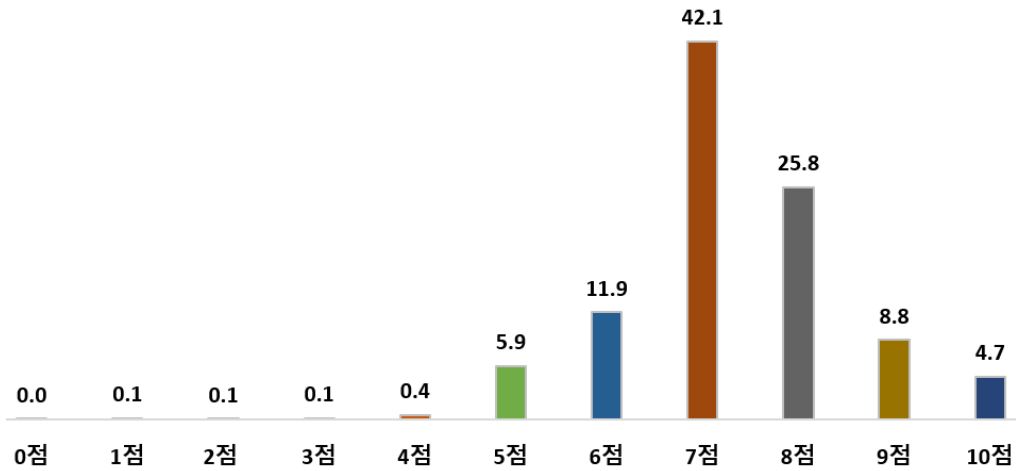
2-3 삶에 대한 만족감 - 3) 행복 빈도

행복에 대한 빈도는 평균 「7.3점」

•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평균 7.3점이며, 「7점」 42.1%, 「8점」 25.8%, 「6점」 11.9%, 「9점」 8.8%, 「5점」 5.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북부권이 평균 7.5점으로 가장 높고, 중부권 7.4점, 서남부권 7.1점 순으로 나타남.
- 행복 빈도에 대해서 여자와 남자 모두 평균 7.3점으로 동일함.
- 연령별로 행복 빈도는 15~29세에서 7.5점으로 가장 높고, 70세 이상은 7.1점으로 가장 낮음.
-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행복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임.

삶에 대한 만족감 - 3) 행복 빈도



[표 2-3] 삶에 대한 만족감 - 3) 행복 빈도

(단위: %, 점)

구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020년 <지역별>	100.0	0.0	0.1	0.1	0.1	0.4	5.9	11.9	42.1	25.8	8.8	4.7	7.3
중부권	100.0	0.0	0.2	0.0	0.4	0.8	7.4	8.2	38.9	24.2	13.5	6.6	7.4
북부권	100.0	0.1	0.0	0.2	0.0	0.7	3.3	6.5	47.8	22.7	11.5	7.3	7.5
중부권	100.0	0.0	0.0	0.0	0.0	0.0	6.2	19.0	41.4	29.4	2.7	1.3	7.1
북부권													
서남부권	100.0	0.1	0.2	0.0	0.0	0.4	5.1	10.8	43.9	25.8	8.8	4.9	7.3
여자	100.0	0.0	0.0	0.1	0.3	0.5	6.8	13.2	39.9	25.8	8.9	4.5	7.3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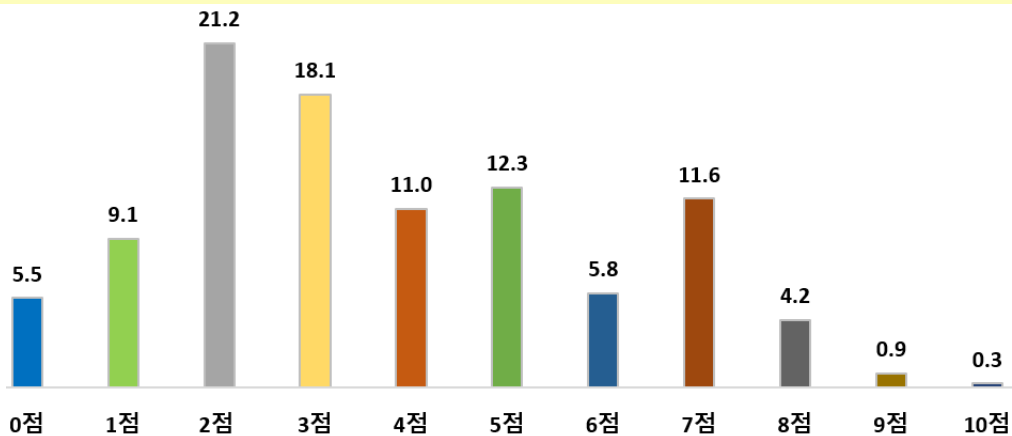
2-4 삶에 대한 만족감 - 4) 걱정빈도

걱정에 대한 빈도는 평균 「4.8점」

• 어제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는 평균 4.8점이며, 「2점」 21.2%, 「3점」 18.1%, 「5점」 12.3%, 「7점」 11.6%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서남부권이 평균 5.2점으로 가장 높고, 북부권 4.6점, 중부권 4.5점 순으로 나타남.
- 여자와 남자 모두 평균 4.8점으로 동일함.
- 연령별로 40대가 5.5점으로 가장 높고, 15~29세에서 4.7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걱정 빈도 평균 점수가 낮게 나타나며, 직업별로 사무직 종사자가 5.3점으로 걱정 빈도가 가장 많고, 기능/노무 종사자가 4.4점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삶에 대한 만족감 - 4) 걱정빈도



[표 2-4] 삶에 대한 만족감 - 4) 걱정빈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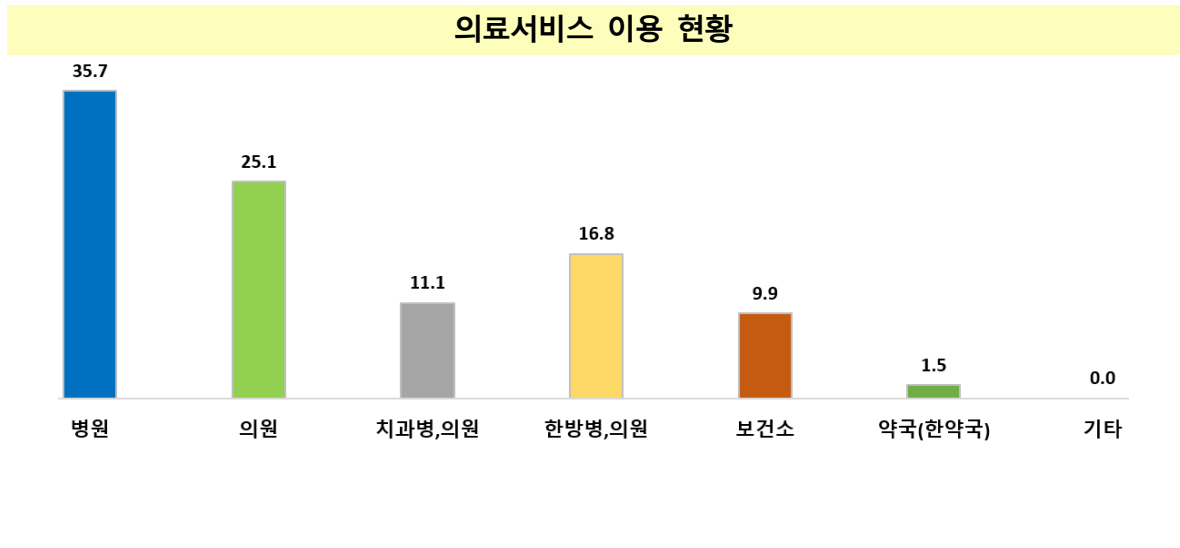
구분	계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6점	7점	8점	9점	10점	평균
2020년	100.0	5.5	9.1	21.2	18.1	11.0	12.3	5.8	11.6	4.2	0.9	0.3	4.8
< 지역별 >													
중부권	100.0	7.9	11.5	21.2	22.8	13.2	13.3	5.3	3.1	0.8	0.3	0.6	4.5
북부권	100.0	10.1	10.2	11.4	16.5	15.1	17.8	5.7	9.9	2.2	1.0	0.1	4.6
서남부권	100.0	0.3	6.1	27.5	14.5	6.3	7.9	6.4	21.0	8.7	1.4	0.0	5.2
< 성별 >													
남자	100.0	6.0	10.5	20.2	18.7	10.8	12.5	4.5	11.5	3.9	0.9	0.5	4.8
여자	100.0	4.9	7.6	22.4	17.3	11.2	12.1	7.3	11.8	4.4	0.9	0.0	4.8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5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 「70.6%」, 월 평균 「2.4회」

-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 이용 경험은 70.6%이며, 월 평균 이용횟수는 2.4회로 나타남.
 - 이용경험은 중부권이 76.6%로 가장 많고, 서남부권 68.3%, 북부권 65.2% 순이며, 월 평균 이용횟수는 북부권 2.7회, 서남부권 2.4회, 중부권 2.3회 순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을수록 지난 1년 동안 의료기관 이용 경험과 월 평균 이용횟수가 증가하며, 70세 이상은 94.5%가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평균 3.4회로 나타남.
-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은 「병원」 35.7%, 「의원」 25.1% 순으로 나타남.



[표 2-5]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단위: %)

구 분	계	의료기관 이용한 적이 있다										이용한 적이 없다	
		월평균 이용 횟수	주로 이용한 의료기관										
			소계	병원	의원	치과병, 의원	한방병, 의원	보건소	약국(한약국)	기타			
2018년	100.0	80.4		100.0	18.6	66.5	2.8	4.2	7.4	0.4	0.0	19.6	
2020년	100.0	70.6	2.4	100.0	35.7	25.1	11.1	16.8	9.9	1.5	0.0	29.4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76.6	2.3	100.0	39.5	34.3	9.3	6.8	6.8	3.3	0.0	23.4	
북 부 권	100.0	65.2	2.7	100.0	19.7	21.4	10.2	41.8	6.0	1.0	0.0	34.8	
서 남 부 권	100.0	68.3	2.4	100.0	41.2	17.5	13.5	12.4	15.4	0.0	0.0	31.7	
< 성 별 >													
남 자	100.0	64.9	2.2	100.0	38.6	23.1	11.5	15.8	9.0	1.9	0.0	35.1	
여 자	100.0	77.2	2.7	100.0	32.8	27.1	10.6	17.7	10.7	1.1	0.0	22.8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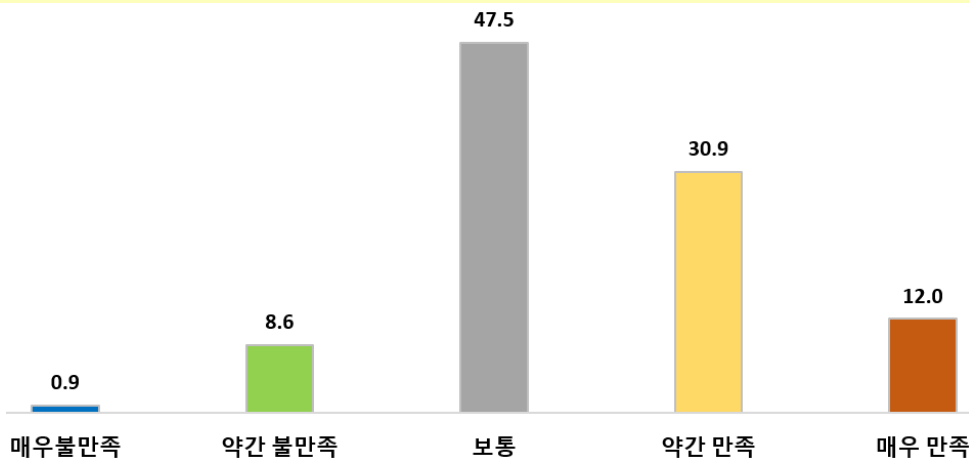
2-6 의료서비스 만족도

의료서비스는 「보통」수준

- 이용한 의료기관에 대해 만족도는 「보통」에 대한 응답이 47.5%로 가장 많고, 「만족」 43.0%, 「불만족」 9.5% 순으로 나타남.

- 의료서비스의 「만족」응답은 43.0%로 2018년(50.9%)대비 7.9% 감소함.
- 의료서비스의 「만족」응답은 지역별로 북부권이 58.7%로 가장 많고, 중부권 58.1%, 서남부권 17.1% 순으로 나타남.
- 남자(42.0%)보다 여자(44.0%)가 의료서비스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60.9%)에서 「만족」 응답이 가장 많고, 「불만족」 응답은 40대(16.3%)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의료서비스 만족도



[표 2-6] 의료서비스 만족도

(단위: %)

구분	계	매우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만족도평균
2018년	100.0	1.7	10.2	37.1	34.5	16.4	3.5
2020년	100.0	0.9	8.6	47.5	30.9	12.0	3.4
< 지역 별 >							
중부권	100.0	1.5	2.2	38.1	37.7	20.4	3.7
북부권	100.0	0.8	9.2	31.3	44.4	14.3	3.6
서남부권	100.0	0.3	15.2	67.4	15.5	1.6	3.0
< 성 별 >							
남자	100.0	0.7	9.7	47.7	31.3	10.7	3.4
여자	100.0	1.1	7.6	47.3	30.6	13.4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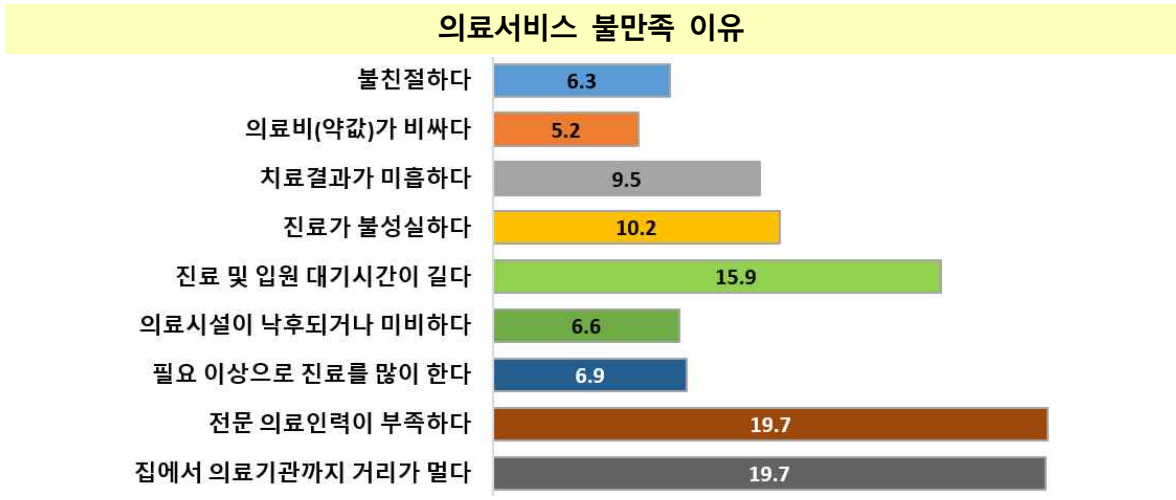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7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는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 19.7%

- 의료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이유로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가 19.7%로 가장 높고, 「집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다」 19.7%,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이 길다」 15.9%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가장 많은 응답은 중부권(25.0%)과 북부권(20.1%)은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이 길다」 응답이 가장 많고, 서남부권은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29.3%)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남자는 「전문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25.0%) 응답이 가장 많고, 여자는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이 길다」(18.8%)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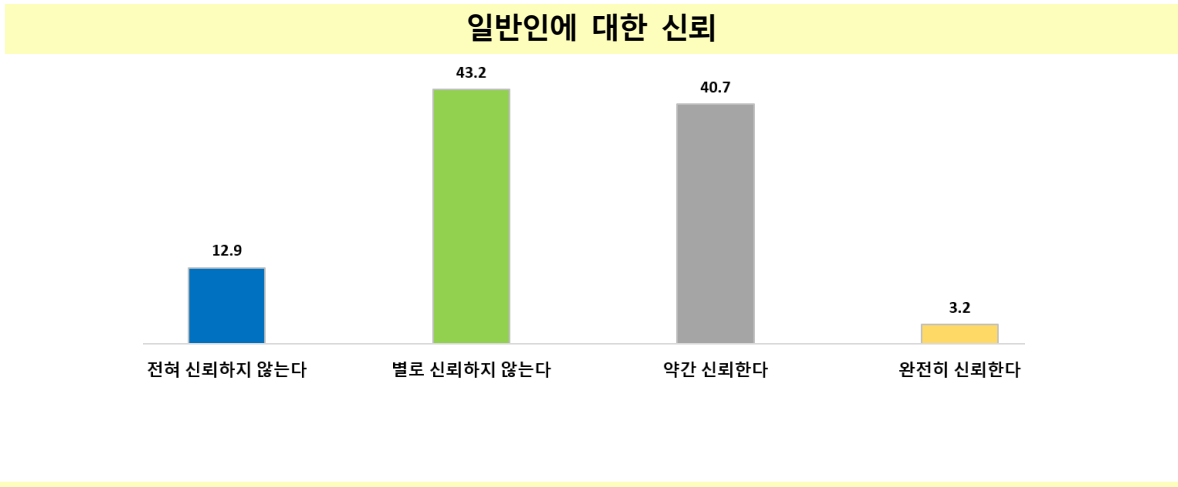
구분	계	불친절하다	의료비(약값)가 비싸다	치료결과가 미흡하다	진료가 불성실하다	진료 및 입원 대기시간이 길다	의료시설이 낙후되거나 미비하다	필요 이상으로 진료를 많이 한다	전문 의료인력이 부족하다	집에서 의료기관까지 거리가 멀다	기타
2018년 1순위	100.0	4.1	27.3	13.5	3.7	12.1	14.6	7.2	5.4	12.2	
2018년 2순위	100.0	3.2	12.9	7.4	0.8	15.8	15.3	4.2	22.9	17.5	
2020년	100.0	6.3	5.2	9.5	10.2	15.9	6.6	6.9	19.7	19.7	
< 지역 별 >											
중부권	100.0	10.9	13.5	8.8	4.9	25.0	8.2	12.1	3.2	13.3	
북부권	100.0	6.9	6.7	9.3	15.1	20.1	10.9	11.6	8.3	11.1	
서남부권	100.0	4.8	2.2	9.7	9.6	11.6	4.3	3.4	29.3	25.1	
< 성 별 >											
남자	100.0	5.0	2.5	5.3	14.3	13.4	5.6	7.5	25.0	21.4	
여자	100.0	7.8	8.2	14.3	5.4	18.8	7.9	6.2	13.8	17.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8 일반인에 대한 신뢰

대부분의 사람(낯선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다」

- 대부분의 사람(낯선 사람)들을 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56.1%로 나타남.
 -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이 43.2%로 가장 높고, 「약간 신뢰한다」 응답이 40.7%,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12.9%, 「완전히 신뢰한다」 3.2% 순으로 나타남.
 -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에 대해서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부권이 81.1%로 가장 높고, 북부권 44.3%, 서남부권 39.6% 순으로 나타남.
 - 남자(53.2%)보다 여자(59.5%)가 더 「신뢰하지 않는다」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70세 이상에서 「신뢰하지 않는다」(62.8%) 응답이 가장 많고, 「신뢰한다」 응답은 30대에서(50.8%)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2-8] 일반인에 대한 신뢰

(단위: %)

구분	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약간 신뢰한다	완전히 신뢰한다
2020년	100.0	12.9	43.2	40.7	3.2
< 지역 별 >					
중부권	100.0	21.0	60.1	18.7	0.3
북부권	100.0	12.4	31.9	52.3	3.4
서남부권	100.0	5.4	34.1	54.5	5.9
< 성 별 >					
남자	100.0	12.6	40.6	43.1	3.7
여자	100.0	13.3	46.2	37.9	2.6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9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평균 「4.4명」

•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동료 등)이 「있다」 97.6% 응답하였으며, 평균 「4.4명」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서남부권 99.5%, 중부권 96.6%, 북부권 96.0% 순으로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평균 인원은 북부권 6.3명, 중부권 4.0명, 서남부권 3.7명 순으로 나타남.
- 남자(97.3%)보다 여자(98.0%)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으나, 평균 인원은 여자(4.1명)보다 남자(4.7명)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응답이 60대(99.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평균 인원은 50대(5.0명)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표 2-9] 사회관계별 소통정도

(단위: %)

구 분	계	있 다		없 다
		비율 (%)	평균인원	
2 0 2 0 년	100.0	97.6	4.4	2.4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96.6	4.0	3.4
북 부 권	100.0	96.0	6.3	4.0
서 남 부 권	100.0	99.5	3.7	0.5
< 성 별 >				
남 자	100.0	97.3	4.7	2.7
여 자	100.0	98.0	4.1	2.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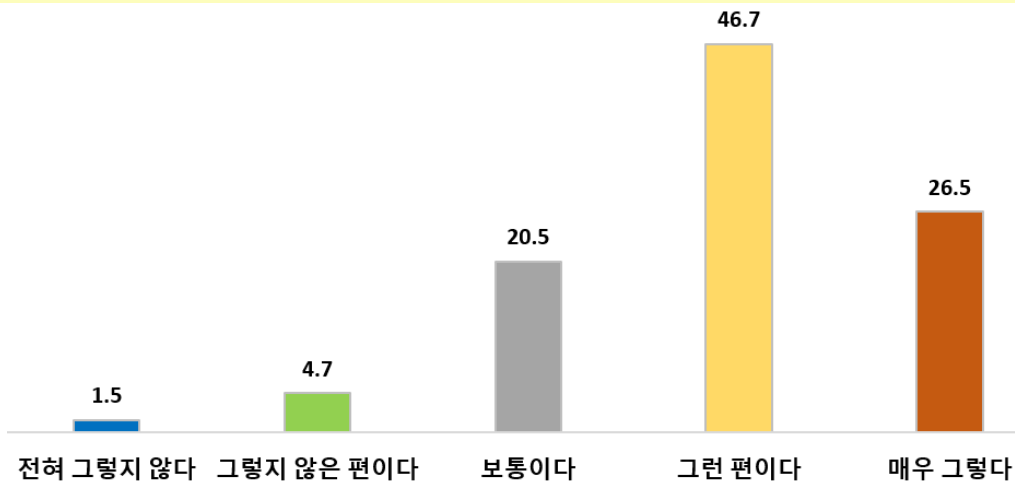
2-10 공동체의식 -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지역 사람들과 「알고 지내는 편」

•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과 서로 잘 알고 지내는 정도는 「그런 편이다」 응답이 46.7%로 가장 높고, 「매우 그렇다」 26.5%, 「보통이다」 20.5% 순으로 나타남.

- 「그렇다」(73.2%) 응답이 「그렇지 않다」(6.2%)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그렇다」 응답은 북부권 80.5%, 중부권 79.3%, 서남부권 62.9% 순으로 나타남.
- 여자(72.9%)보다 남자(73.6%)가 서로서로 알고 지내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알고지내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70세 이상이 82.1%로 가장 높고, 15~29세(43.9%)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공동체의식 -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표 2-10] 공동체의식 - 1)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단위: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0년	100.0	1.5	4.7	20.5	46.7	26.5
< 지역 별 >						
중부권	100.0	1.2	4.6	14.9	39.0	40.3
북부권	100.0	2.8	2.4	14.3	55.0	25.5
서남부권	100.0	0.9	6.3	29.9	48.9	14.0
< 성 별 >						
남자	100.0	1.7	4.3	20.4	45.3	28.3
여자	100.0	1.2	5.2	20.6	48.4	2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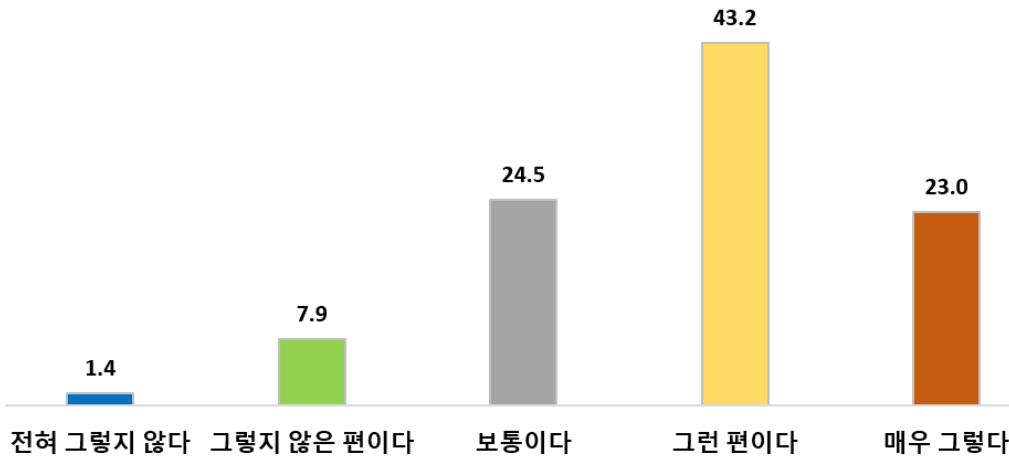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11 공동체의식 - 2) 동네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는 편」

- 지역 사람들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는지에 대한 응답에 「그런 편이다」 응답이 43.2%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 24.5%, 「매우 그렇다」 23.0% 순으로 나타남.
- 「그렇다」(66.2%) 응답이 「그렇지 않다」(9.3%)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그렇다」 응답은 북부권 73.5%, 중부권 72.7%, 서남부권 55.3% 순으로 나타남.
- 남자(64.2%)보다 여자(68.6%)가 지역 사람들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 사람들과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하는 경향을 보이며, 70세 이상이 77.4%로 가장 많이 응답함.

공동체의식 - 2) 동네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표 2-11] 공동체의식 - 2) 동네 일에 대해 자주 이야기 한다

(단위: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0년	100.0	1.4	7.9	24.5	43.2	23.0
< 지역별 >						
중부권	100.0	1.4	8.4	17.4	35.3	37.4
북부권	100.0	2.1	5.2	19.2	49.3	24.1
서남부권	100.0	1.0	9.1	34.6	46.8	8.5
< 성별 >						
남자	100.0	1.7	7.7	26.4	40.7	23.5
여자	100.0	1.1	8.2	22.2	46.1	22.5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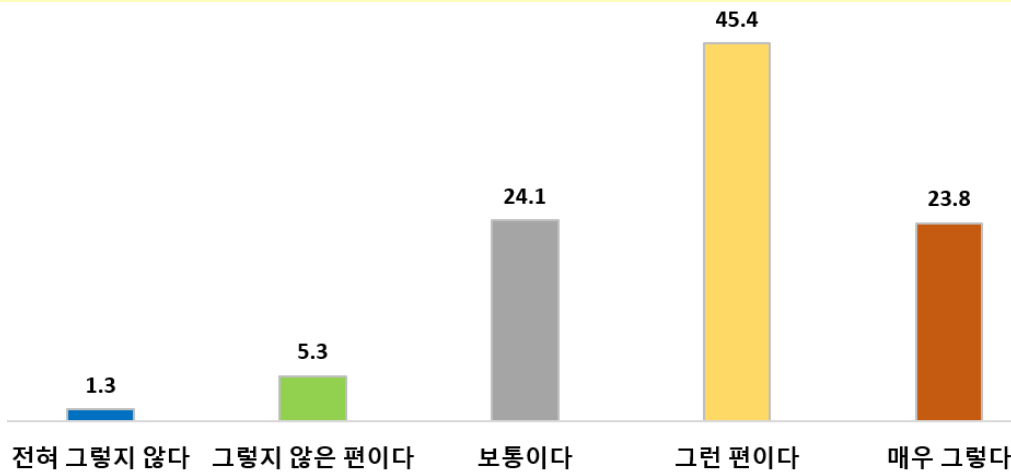
2-12 공동체의식 - 3) 어려운 일은 서로 잘 돕는다

어려운 일에 서로 「잘 돕는다」

• 지역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고 느끼는 정도가 「그런 편이다」 응답이 45.4%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 24.1%, 「매우 그렇다」 23.8% 순으로 나타남.

- 「그렇다」(69.2%) 응답이 「그렇지 않다」(6.6%)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그렇다」 응답은 북부권 77.9%, 중부권 75.1%, 서남부권 58.0% 순으로 나타남.
- 여자(68.3%)보다 남자(70.0%)가 지역 사람들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돕는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로 돕는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이며, 70세 이상이 76.0%로 가장 많고, 15~29세(41.3%)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됨.

공동체의식 - 3) 어려운 일은 서로 잘 돕는다



[표 2-12] 공동체의식 - 3) 어려운 일은 서로 잘 돕는다

(단위: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0년	100.0	1.3	5.3	24.1	45.4	23.8
< 지역 별 >						
중부권	100.0	1.4	5.9	17.6	37.2	37.9
북부권	100.0	2.2	4.5	15.4	50.8	27.1
서남부권	100.0	0.7	5.3	36.0	50.0	8.1
< 성 별 >						
남자	100.0	1.7	3.9	24.5	46.3	23.7
여자	100.0	1.0	7.0	23.7	44.4	23.9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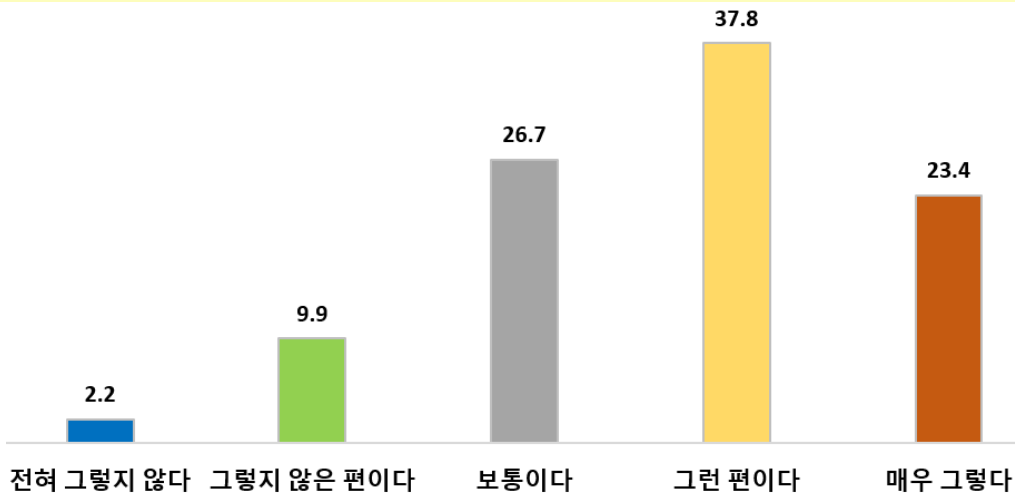
2-13 공동체의식 - 4) 동네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람들이 평소 동네의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에 대하여 「그런 편이다」 응답이 37.8%로 가장 높고, 「보통이다」 26.7%, 「매우 그렇다」 23.4% 순으로 나타남.

- 「그렇다」(61.2%) 응답이 「그렇지 않다」(12.6%)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그렇다」 응답은 북부권 70.6%, 중부권 68.6%, 서남부권 48.0% 순으로 나타남.
- 남자(60.3%)보다 여자(62.1%)가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이 높아질수록 지역 사람들이 각종 행사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공동체의식 - 4) 동네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표 2-13] 공동체의식 - 4) 동네 행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단위: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2020년	100.0	2.2	9.9	26.7	37.8	23.4
< 지역 별 >						
중부권	100.0	3.1	9.8	18.5	32.1	36.6
북부권	100.0	3.3	8.6	17.6	44.0	26.5
서남부권	100.0	0.7	10.8	40.5	39.3	8.7
< 성 별 >						
남자	100.0	2.6	9.2	27.9	36.9	23.4
여자	100.0	1.8	10.6	25.5	38.8	23.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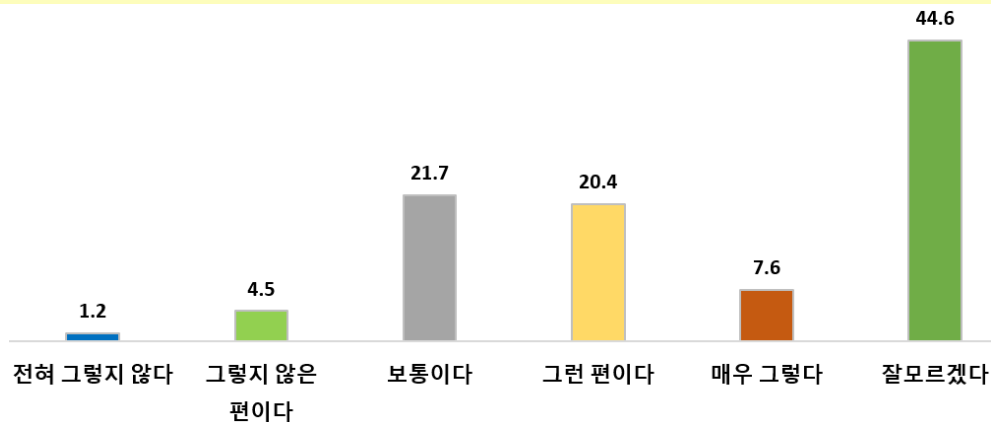
2-14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 「잘 모르겠다」

•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는 「잘 모르겠다」(44.6%) 응답이 가장 많고, 「그렇다」는 응답은 28.0%로 나타남.

- 「그렇다」(28.0%) 응답이 「그렇지 않다」(5.7%)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56.5%)과 서남부권(46.1%)은 「잘 모르겠다」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은 「그렇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렇다」 응답은 북부권 63.3%, 서남부권 18.0%, 중부권 15.6% 순으로 나타남.
- 남자(43.5%)와 여자(45.8%) 모두 「잘 모르겠다」 응답이 가장 많고, 「그렇다」 응답은 남자(27.9%)보다 여자(28.1%)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50.0%)와 40대(39.5%)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많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잘 모르겠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



[표 2-14]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1)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복지

(단위: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만족도	잘모르겠다
2020년	100.0	1.2	4.5	21.7	20.4	7.6	3.5	44.6
< 지역별 >								
중부권	100.0	3.1	4.4	20.4	13.1	2.6	3.2	56.5
북부권	100.0	0.2	3.3	9.6	35.8	27.5	4.1	23.6
서남부권	100.0	0.0	5.4	30.6	17.8	0.2	3.2	46.1
< 성별 >								
남자	100.0	1.4	5.3	21.9	20.5	7.5	3.5	43.5
여자	100.0	1.0	3.6	21.4	20.2	7.9	3.6	45.8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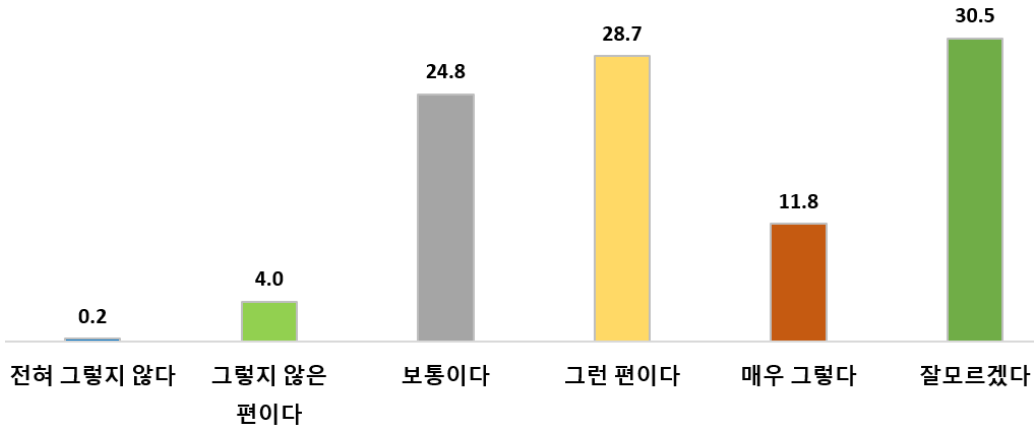
2-15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2)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잘 제공됨」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복지가 잘 제공되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그렇다」 40.5%로 나타남.

- 「그렇다」(40.5%) 응답이 「그렇지 않다」(4.2%)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중부권(40.4%)은 「잘 모르겠다」 응답이 가장 많고, 북부권(70.6%)과 서남부권(34.4%)은 「그렇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렇다」 응답은 북부권 70.6%, 서남부권 34.4%, 중부권 27.5% 순으로 나타남.
- 여자(39.7%)보다 남자(41.2%)가 「그렇다」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15~29세 연령대에서는 「잘 모르겠다」(59.0%) 응답이 가장 많고,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그렇다」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2)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표 2-15] 사회복지서비스 만족도 - 2)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단위: %)

구분	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평균만족도	잘 모르겠다
2020년	100.0	0.2	4.0	24.8	28.7	11.8	3.7	30.5
< 지역별 >								
중부권	100.0	0.4	3.2	28.5	22.5	5.0	3.5	40.4
북부권	100.0	0.2	6.1	7.6	33.9	36.7	4.2	15.5
서남부권	100.0	0.1	3.5	32.0	31.5	2.9	3.5	30.0
< 성별 >								
남자	100.0	0.4	4.1	24.9	29.7	11.5	3.7	29.4
여자	100.0	0.1	3.8	24.7	27.6	12.1	3.7	3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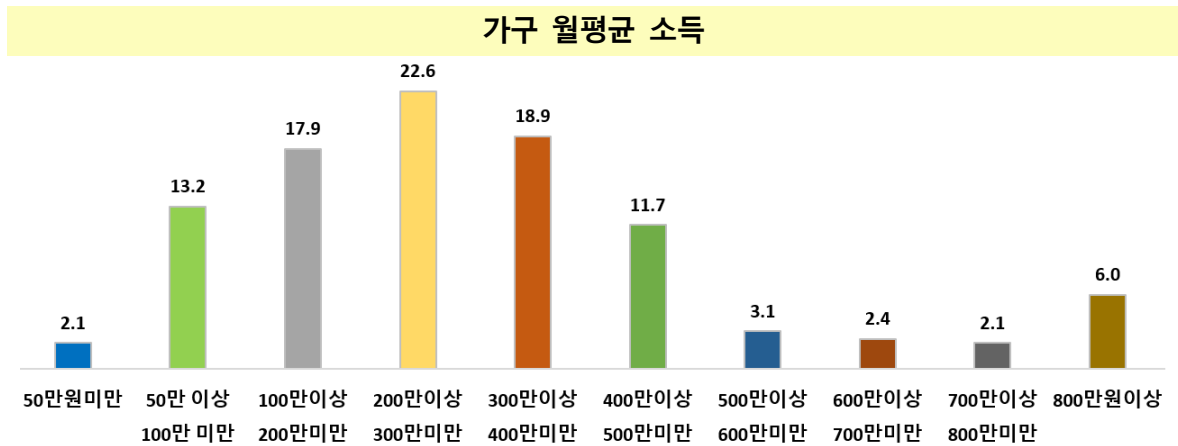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16 가구 월평균 소득

월평균 소득은 「200~300만원」이 가장 많음

• 세금 납부 전의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은 「200만원~300만원」 22.6%, 「300만원~400만원」 18.9%, 「100만원~200만원」 17.9% 순으로 나타남.

- 2020년 평균 소득은 315.7만원으로 2019년(270.6만원) 대비 45.1만원 증가하였으며,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북부권이 347.4만원으로 가장 높고, 서남부권 310.5만원, 중부권 300.8만원 순으로 나타남. 가장 높은 북부권과 가장 낮은 중부권의 평균 소득 차이는 46.6만원으로 나타남.
- 남자(347.5만원)와 여자(177.2만원)의 평균 소득 차이는 170.2만원으로 나타남.
- 연령대별로 50대에서 평균 가구소득(439.5만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전문/관리직 종사자(467.9만원)가 가장 높고, 농림어업 종사자(310.1만원)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평균 소득 차이는 157.8만원으로 분석됨.



[표 2-16] 가구 월평균 소득

(단위: %)

구분	계	50만원 미만	50만 이상 100만 미만	100만 이상 200만 미만	200만 이상 300만 미만	300만 이상 400만 미만	400만 이상 500만 미만	500만 이상 600만 미만	600만 이상 700만 미만	700만 이상 800만 미만	800만원 이상	평균(만원)
2017년	100.0	11.0	21.1	25.7	18.1	13.7	5.6	2.0	0.6	2.2		209.9
2018년	100.0	7.2	19.5	20.0	23.7	15.8	6.0	2.0	2.4	0.6	2.8	245.4
2019년	100.0	8.4	15.4	18.9	21.8	16.9	7.9	2.9	2.7	0.4	4.6	270.6
2020년	100.0	2.1	13.2	17.9	22.6	18.9	11.7	3.1	2.4	2.1	6.0	315.7
< 지역 별 >												
중부권	100.0	4.4	16.4	18.6	19.1	14.8	13.6	2.4	2.8	3.5	4.5	300.8
북부권	100.0	0.6	10.7	20.2	28.2	14.0	5.8	3.9	1.9	1.7	13.0	347.4
서남부권	100.0	0.7	11.4	15.7	22.6	26.4	13.6	3.3	2.4	0.9	3.1	310.5
< 성 별 >												
남자	100.0	0.5	6.5	17.0	24.9	22.2	13.3	3.6	3.0	1.9	7.0	347.5
여자	100.0	9.1	42.2	21.9	12.4	4.3	4.6	0.6	0.0	3.2	1.7	177.2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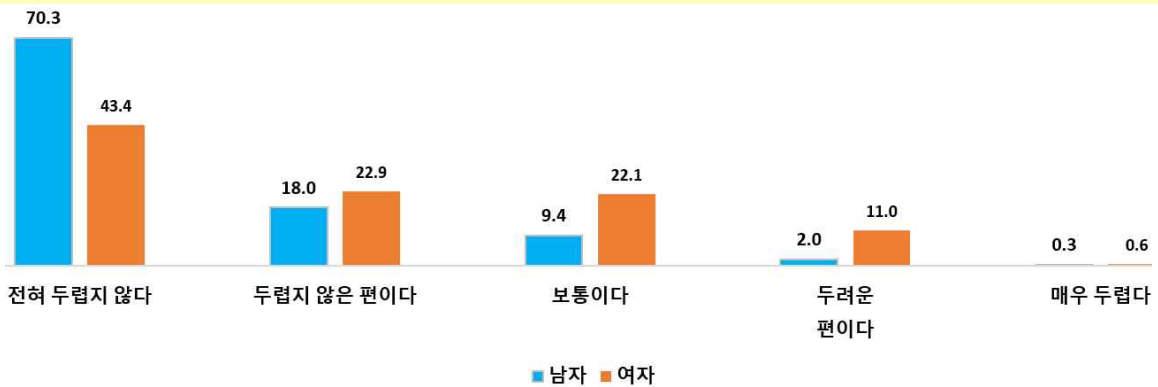
2-1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지 않다」

• 밤에 혼자 집에 있는 상황에서 「두렵지 않다」(전혀 두렵지 않다+두렵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78.1%로 나타남.

- 지역별로 「두렵지 않다」 응답은 북부권 91.3%, 중부권 83.4%, 서남부권 64.7% 순으로 나타남.
-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여자(66.4%)보다 남자(88.3%)가 더 많은 것으로 여자가 더 두려움을 느끼는 편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40대에서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86.4%로 가장 높고, 15~29세에서 72.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표 2-17]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1)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단위: %)

구분	계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2020년	100.0	57.9	20.3	15.3	6.2	0.4
< 지역별 >						
중부권	100.0	69.7	13.7	7.7	8.4	0.4
북부권	100.0	67.8	23.5	5.2	3.3	0.2
서남부권	100.0	40.2	24.5	28.9	5.8	0.6
< 성별 >						
남자	100.0	70.3	18.0	9.4	2.0	0.3
여자	100.0	43.4	22.9	22.1	11.0	0.6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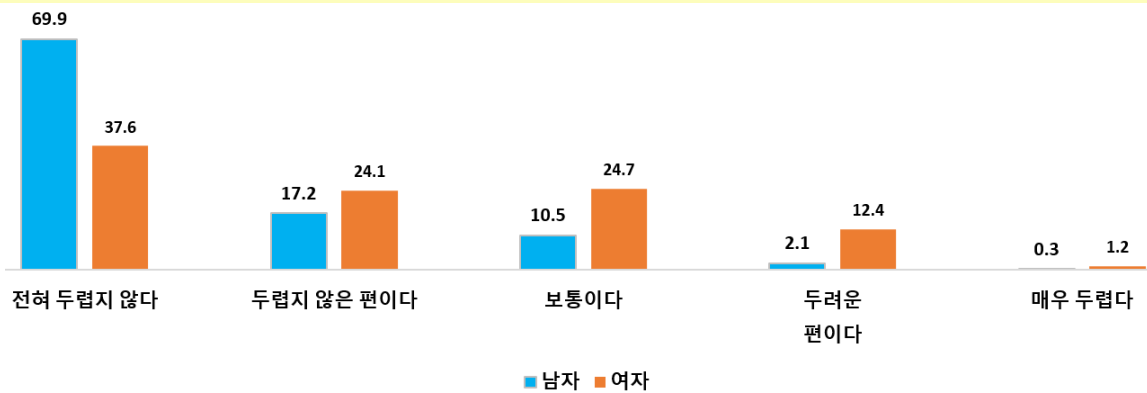
2-1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 밤에 혼자 지역(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다」

• 밤에 혼자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지 않다」(전혀 두렵지 않다+두렵지 않은 편이다)는 응답이 75.4%로 나타남.

- 지역별로 「두렵지 않다」 응답은 북부권 86.8%, 중부권 80.4%, 서남부권 63.3% 순으로 나타남.
-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여자(61.7%)보다 남자(87.1%)가 더 많은 것 여자가 더 두려움을 느끼는 편인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40대에서 「두렵지 않다」는 응답이 84.0%로 가장 높고, 30대(66.0%)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 밤에 혼자 지역(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표 2-18]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 - 2) 밤에 혼자 지역(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단위: %)

구분	계	전혀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두려운 편이다	매우 두렵다
2020년	100.0	54.9	20.4	17.1	6.9	0.7
< 지역별 >						
중부권	100.0	66.8	13.6	9.4	9.0	1.1
북부권	100.0	62.4	24.3	7.8	5.3	0.1
서남부권	100.0	38.8	24.5	30.3	5.8	0.6
< 성별 >						
남자	100.0	69.9	17.2	10.5	2.1	0.3
여자	100.0	37.6	24.1	24.7	12.4	1.2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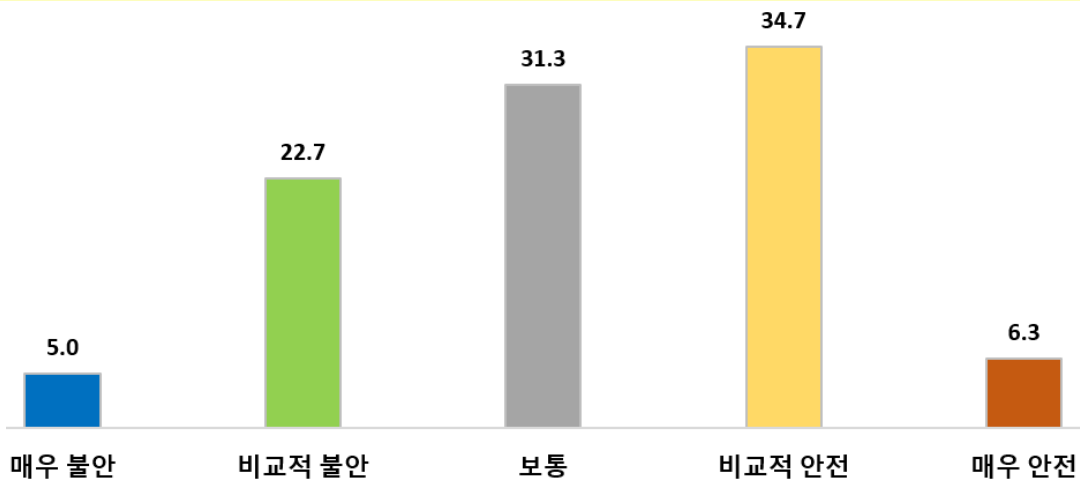
2-1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안전 환경 「안전함」

•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안전 환경에 대하여 「안전하다」(비교적 안전+매우 안전) 응답이 41.0%로 나타남.

- 「안전하다」(41.0%) 응답이 「불안하다」(27.7%)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북부권이 47.3%로 가장 많고, 중부권 46.4%, 서남부권 31.9% 순으로 나타남. 서남부권은 「보통이다」(43.5%)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39.0%)보다 남자(42.8%)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30대(49.0%)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70세 이상(33.2%)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표 2-19]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1) 자연재해(태풍, 지진 등)

(단위: %)

구 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6.6	18.6	36.1	35.2	3.5
2020년	100.0	5.0	22.7	31.3	34.7	6.3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8.6	19.6	25.4	40.0	6.4
북 부 권	100.0	3.1	28.7	20.9	33.1	14.2
서 남 부 권	100.0	2.7	22.0	43.5	30.7	1.2
< 성 별 >						
남 자	100.0	4.4	21.2	31.6	35.2	7.6
여 자	100.0	5.5	24.6	30.9	34.2	4.9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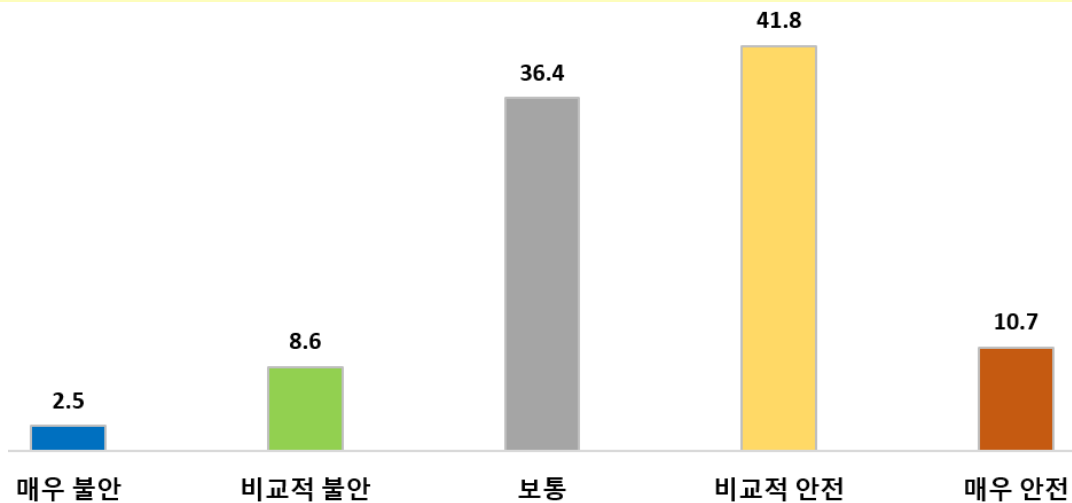
2-20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 환경 「안전함」

•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안전 환경에 대하여 「안전하다」(비교적 안전+매우 안전) 응답이 52.5%로 나타남.

- 「안전하다」(52.5%) 응답이 「불안하다」(11.2%)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북부권이 76.6%로 가장 많고, 중부권 52.3%, 서남부권 37.2% 순으로 나타남. 서남부권은 「보통이다」(49.3%)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51.9%)보다 여자(53.1%)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30대(60.9%)에서 가장 많고, 70세 이상(49.0%)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불안하다」 응답은 30대(16.3%)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표 2-20]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2) 건축물 및 시설물(주택, 교량)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4.8	7.2	49.1	34.3	4.7
2020년	100.0	2.5	8.6	36.4	41.8	10.7
< 지역 별 >						
중부권	100.0	6.5	7.3	33.9	44.6	7.7
북부권	100.0	0.1	3.4	19.9	47.7	28.9
서남부권	100.0	0.2	13.3	49.3	35.3	1.9
< 성 별 >						
남자	100.0	2.5	8.1	37.5	39.6	12.3
여자	100.0	2.5	9.3	35.1	44.4	8.8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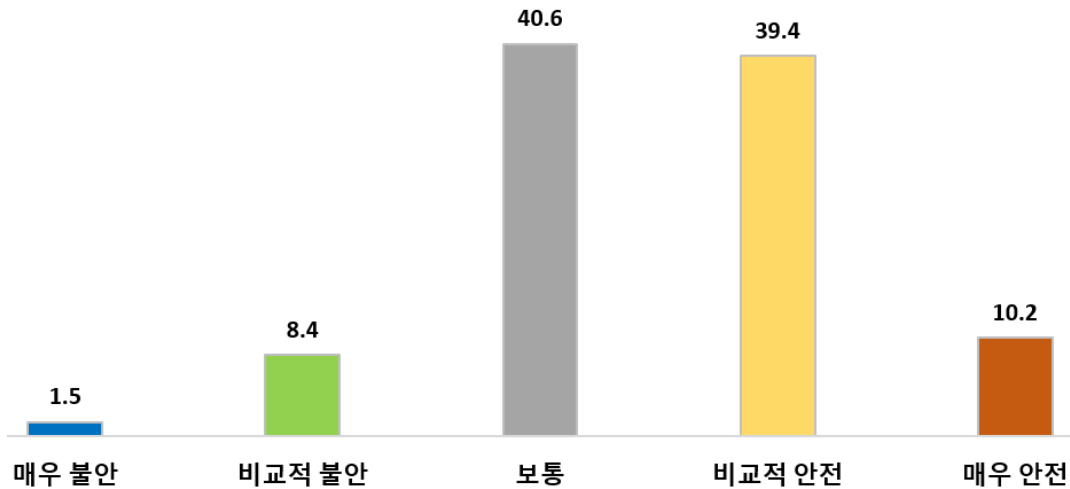
2-21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3) 교통사고

교통사고 안전 환경 「안전함」

• 교통사고 안전 환경에 대하여 「안전하다」(비교적 안전+매우 안전) 응답이 49.5%로 나타남.

- 「안전하다」(49.5%) 응답이 「불안하다」(9.9%)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북부권이 75.9%로 가장 많고, 중부권 43.7%, 서남부권 38.4% 순으로 나타남. 서남부권은 「보통이다」(55.8%)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48.4%)보다 남자(50.6%)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50대(58.8%)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60대(13.7%)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3) 교통사고



[표 2-21]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3) 교통사고

(단위: %)

구 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0.9	11.6	38.6	38.9	10.0
2020년	100.0	1.5	8.4	40.6	39.4	10.2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3.9	14.9	37.5	36.5	7.2
북 부 권	100.0	0.0	2.8	21.3	46.9	29.0
서 남 부 권	100.0	0.0	5.8	55.8	37.3	1.1
< 성 별 >						
남 자	100.0	1.6	8.1	39.7	39.2	11.4
여 자	100.0	1.3	8.8	41.6	39.6	8.8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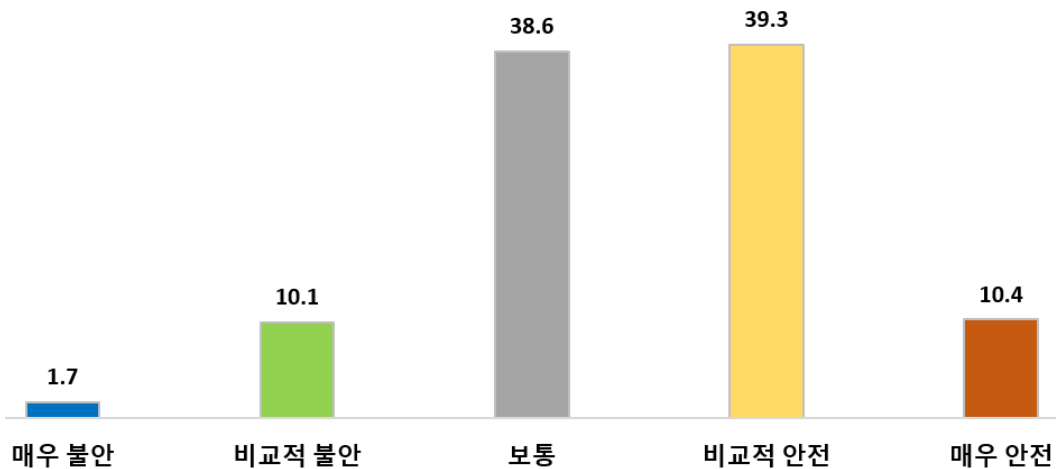
2-22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4) 화재(산불 포함)

화재 안전 환경 「안전함」

• 산불을 포함한 화재 안전 환경에 대하여 「안전하다」(비교적 안전+매우 안전) 응답이 49.7%로 나타남.

- 「안전하다」(49.7%) 응답이 「불안하다」(11.7%)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북부권이 80.3%로 가장 많고, 중부권 44.5%, 서남부권 35.2% 순으로 나타남. 서남부권은 「보통이다」(55.0%)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49.5%)보다 남자(49.8%)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50대(58.1%)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30대(15.2%)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4) 화재(산불 포함)



[표 2-22]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4) 화재(산불 포함)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1.3	11.9	44.3	33.9	8.5
2020년	100.0	1.7	10.1	38.6	39.3	10.4
< 지역 별 >						
중부권	100.0	4.5	15.7	35.3	38.3	6.2
북부권	100.0	0.0	2.0	17.7	48.7	31.6
서남부권	100.0	0.0	9.8	55.0	34.4	0.8
< 성 별 >						
남자	100.0	1.8	10.5	37.9	38.8	11.0
여자	100.0	1.5	9.6	39.5	39.9	9.6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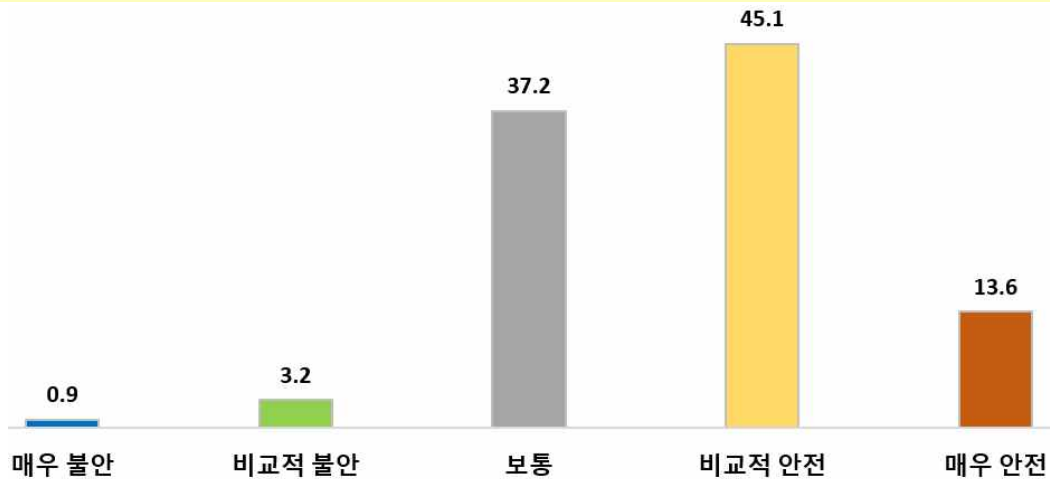
2-23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5)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 환경 「안전함」

• 불량식품, 식중독 등 먹거리 안전 환경에 대하여 「안전하다」(비교적 안전+매우 안전) 응답이 58.7%로 나타남.

- 「안전하다」(58.7%) 응답이 「불안하다」(4.1%)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북부권이 87.5%로 가장 많고, 중부권 56.1%, 서남부권 42.9% 순으로 나타남. 서남부권은 「보통이다」(56.0%)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58.6%)보다 남자(58.8%)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50대(66.2%)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30대(6.4%)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5)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표 2-23]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5) 먹거리(불량식품, 식중독 등)

(단위: %)

구 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0.1	3.9	45.2	39.9	10.8
2020년	100.0	0.9	3.2	37.2	45.1	13.6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2.3	6.3	35.2	48.5	7.6
북 부 권	100.0	0.0	1.8	10.7	46.2	41.3
서 남 부 권	100.0	0.0	1.1	56.0	41.1	1.7
< 성 별 >						
남 자	100.0	1.0	2.9	37.3	44.7	14.1
여 자	100.0	0.7	3.5	37.2	45.6	13.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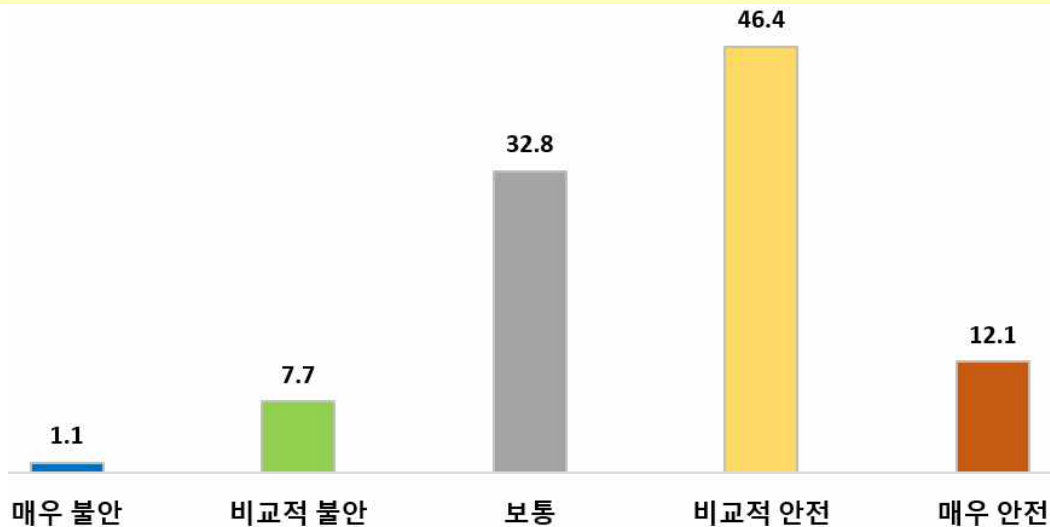
2-24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6) 정보안전(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정보 보안 안전 환경 「안전함」

• 개인정보 유출, 컴퓨터 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정보보안 안전 환경에 대하여 「안전하다」(비교적 안전+매우 안전) 응답이 58.5%로 나타남.

- 「안전하다」(58.5%) 응답이 「불안하다」(8.8%)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북부권이 82.1%로 가장 많고, 중부권 59.3%, 서남부권 42.6% 순으로 나타남. 서남부권은 「보통이다」(46.4%)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58.3%)보다 남자(58.6%)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30대(64.4%)에서 가장 많고, 15~29세(43.0%)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불안하다」 응답은 30대(12.9%)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6) 정보안전(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표 2-24]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6) 정보안전(개인정보유출, 컴퓨터바이러스, 기타 해킹 등)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1.0	9.2	45.8	37.4	6.6
2020년	100.0	1.1	7.7	32.8	46.4	12.1
< 지역별 >						
중부권	100.0	2.8	7.5	30.4	51.3	8.0
북부권	100.0	0.1	2.8	15.0	47.0	35.0
서남부권	100.0	0.0	11.0	46.4	41.2	1.4
< 성별 >						
남자	100.0	1.3	7.6	32.5	46.0	12.6
여자	100.0	0.7	7.9	33.1	46.8	11.5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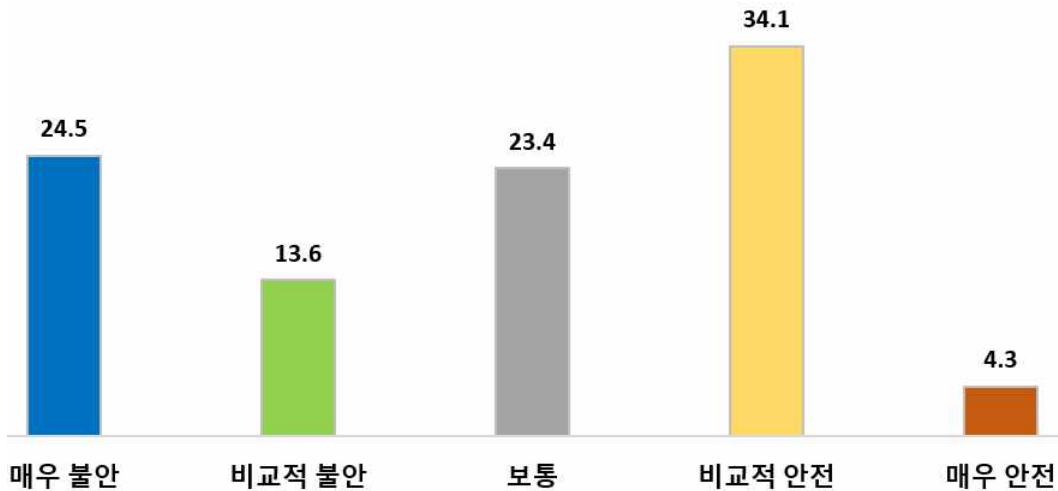
2-25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7)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 안전 환경 「안전함」

• 신종 바이러스 등 신종 전염병 안전 환경에 대하여 「안전하다」(비교적 안전+매우 안전) 응답이 38.4%로 나타남.

- 「안전하다」(38.4%) 응답이 「불안하다」(38.1%)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서남부권이 43.3%로 가장 많고, 중부권 42.5%, 북부권 24.7% 순으로 나타남. 북부권은 「불안하다」(64.5%)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남자는 「안전하다」(40.6%) 응답이 많고, 여자는 「불안하다」(40.7%)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30대(49.4%)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70세 이상(44.1%)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7)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표 2-25]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7) 신종 전염병(신종 바이러스 등)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0.7	13.8	38.8	38.4	8.3
2020년	100.0	24.5	13.6	23.4	34.1	4.3
< 지역 별 >						
중부권	100.0	16.0	24.7	16.8	35.7	6.8
북부권	100.0	56.3	8.2	10.8	19.2	5.5
서남부권	100.0	12.5	6.4	37.8	42.1	1.2
< 성 별 >						
남자	100.0	23.9	12.1	23.5	35.9	4.7
여자	100.0	25.3	15.4	23.4	32.0	3.9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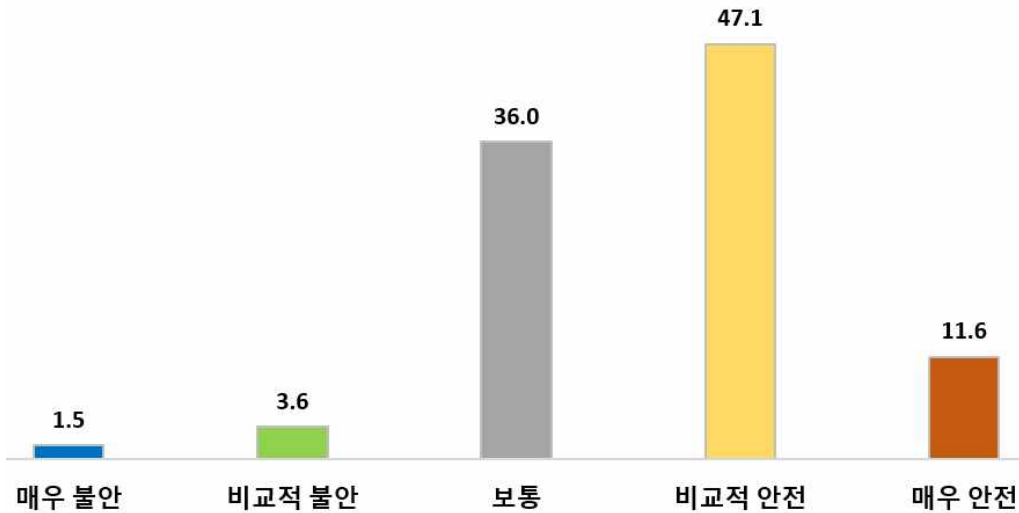
2-26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8) 범죄위험

범죄위험 안전 환경 「안전함」

• 범죄위험 안전 환경에 대하여 「안전하다」(비교적 안전+매우 안전) 응답이 58.8%로 나타남.

- 「안전하다」(58.8%) 응답이 「불안하다」(5.2%)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북부권이 86.8%로 가장 많고, 중부권 53.9%, 서남부권 45.7% 순으로 나타남. 서남부권은 「보통이다」(52.4%)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57.1%)보다 남자(60.3%)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30대(65.4%)에서 가장 많고, 15~29세(48.6%)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불안하다」 응답은 30대(6.8%)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8) 범죄위험



[표 2-26]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8) 범죄위험

(단위: %)

구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018년	100.0	0.9	8.3	39.7	39.3	11.9
2020년	100.0	1.5	3.6	36.0	47.1	11.6
< 지역별 >						
중부권	100.0	3.2	7.7	35.2	46.8	7.1
북부권	100.0	0.3	1.4	11.5	53.5	33.3
서남부권	100.0	0.7	1.2	52.4	43.4	2.3
< 성별 >						
남자	100.0	1.5	3.1	35.1	47.8	12.5
여자	100.0	1.6	4.2	37.1	46.4	10.7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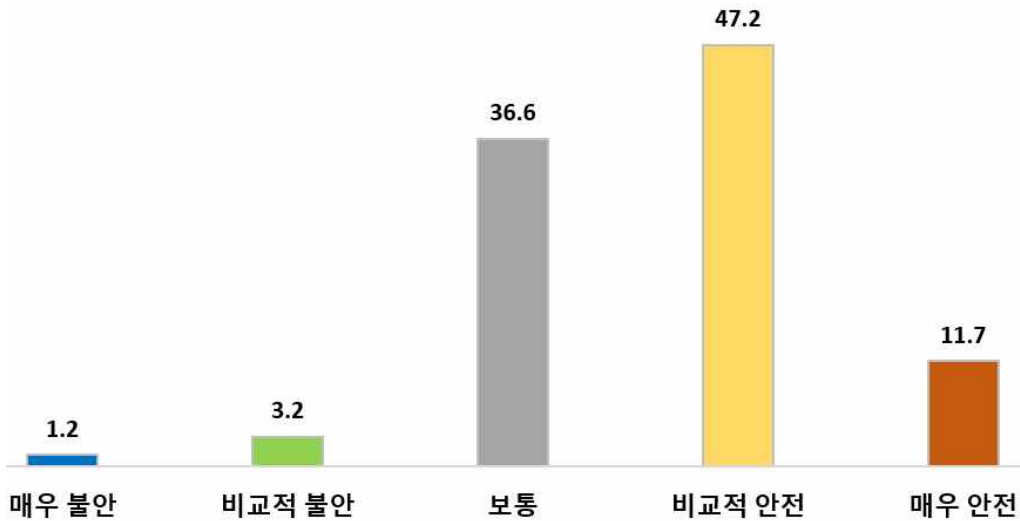
2-2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9) 전반적인 사회안전

전반적인 사회 안전 환경 「안전함」

• 전반적인 사회 안전 환경에 대하여 「안전하다」(비교적 안전+매우 안전) 응답이 58.9%로 나타남.

- 「안전하다」(58.9%) 응답이 「불안하다」(4.4%)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북부권이 87.2%로 가장 많고, 중부권 55.3%, 서남부권 44.4% 순으로 나타남. 서남부권은 「보통이다」(54.4%)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여자(57.3%)보다 남자(60.3%)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안전하다」 응답은 50대(66.2%)에서 가장 많고, 「불안하다」 응답은 40대(5.7%)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9) 전반적인 사회안전



[표 2-27] 안전환경에 대한 평가 - 9) 전반적인 사회안전

(단위: %)

구 분	계	매우 불안	비교적 불안	보통	비교적 안전	매우 안전
2 0 1 8 년	100.0	0.1	4.1	44.8	42.2	8.8
2 0 2 0 년	100.0	1.2	3.2	36.6	47.2	11.7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3.3	6.2	35.2	47.3	8.0
북 부 권	100.0	0.0	1.9	10.9	53.6	33.6
서 남 부 권	100.0	0.0	1.2	54.4	43.0	1.4
< 성 별 >						
남 자	100.0	1.4	2.6	35.7	48.0	12.4
여 자	100.0	1.0	3.9	37.8	46.3	11.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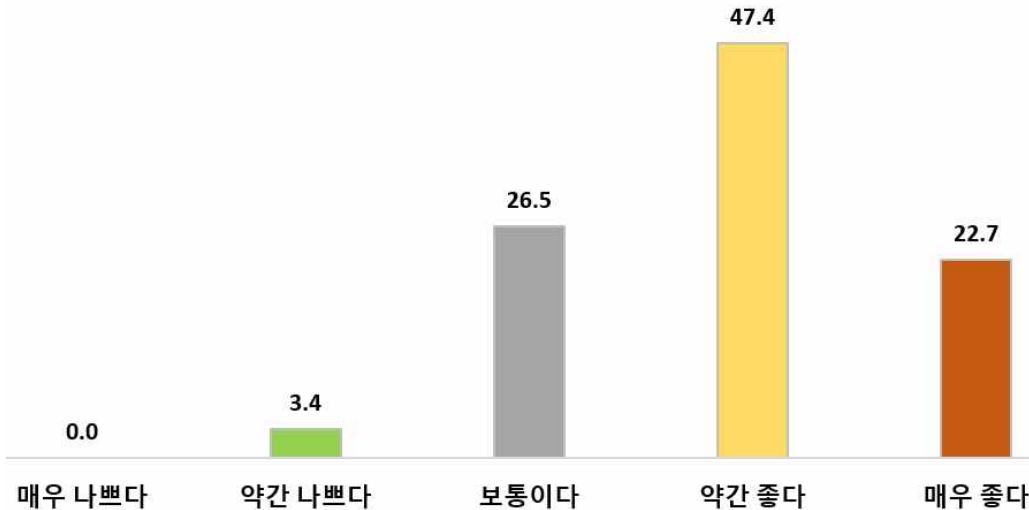
2-28 환경체감도 - 1)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대기 환경 「좋다」

• 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등 대기 환경에 대하여 「좋다」(약간 좋다+매우 좋다) 응답이 70.1%로 나타남.

- 「좋다」(70.1%) 응답이 「나쁘다」(3.4%)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좋다」 응답은 북부권 88.2%, 중부권 64.8%, 서남부권 63.8% 순으로 나타남.
- 남자(70.0%)보다 여자(70.3%)가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좋다」 응답은 30대(78.7%)에서 가장 많고, 「나쁘다」 응답은 15~29세(10.9%)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환경체감도 - 1)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표 2-28] 환경체감도 - 1) 대기(미세먼지, 악취, 매연, 오존경보)

(단위: %)

구 분	계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2018년	100.0	0.7	10.4	49.9	24.9	14.1
2020년	100.0	0.0	3.4	26.5	47.4	22.7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0.0	7.8	27.4	46.3	18.5
북 부 권	100.0	0.0	0.5	11.3	46.9	41.4
서 남 부 권	100.0	0.0	0.9	35.3	48.9	14.9
< 성 별 >						
남 자	100.0	0.0	3.5	26.6	47.8	22.1
여 자	100.0	0.0	3.2	26.4	46.9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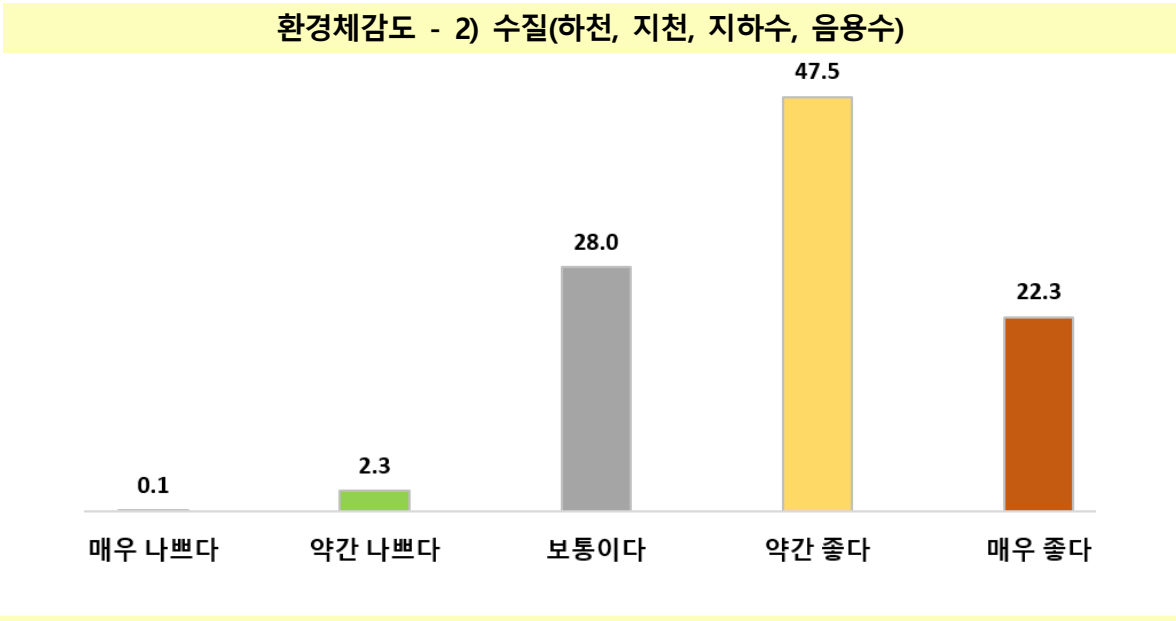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2-29 환경체감도 - 2) 수질(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수질 환경 「좋다」

• 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등 수질 환경에 대하여 「좋다」(약간 좋다+매우 좋다) 응답이 69.7%로 나타남.

- 「좋다」(69.7%) 응답이 「나쁘다」(2.3%)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좋다」 응답은 북부권 86.9%, 서남부권 64.5%, 중부권 63.8% 순으로 나타남.
- 남자(69.2%)보다 여자(70.3%)가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좋다」 응답은 30대(75.8%)에서 가장 많고, 「나쁘다」 응답은 15~29세(5.7%)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9] 환경체감도 - 2) 수질(하천, 지천, 지하수, 음용수)

(단위: %)

구 분	계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2 0 1 8 년	100.0	0.3	5.9	52.0	28.6	13.2
2 0 2 0 년	100.0	0.1	2.3	28.0	47.5	22.3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0.0	4.0	32.2	47.4	16.3
북 부 권	100.0	0.2	0.0	12.8	43.7	43.2
서 남 부 권	100.0	0.0	2.0	33.5	49.9	14.6
< 성 별 >						
남 자	100.0	0.1	2.0	28.8	47.1	22.1
여 자	100.0	0.1	2.6	27.0	47.9	22.4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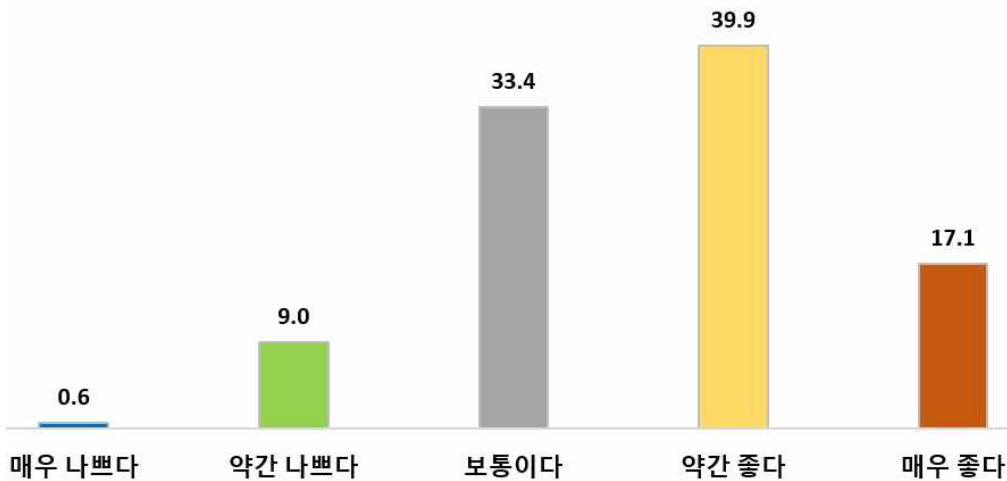
2-30 환경체감도 - 3)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토양 환경 「좋다」

• 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양 오염 환경에 대하여 「좋다」(약간 좋다 +매우 좋다) 응답이 57.0%로 나타남.

- 「좋다」(57.0%) 응답이 「나쁘다」(9.6%)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좋다」 응답은 북부권 72.6%, 서남부권 53.0%, 중부권 50.8% 순으로 나타남.
- 여자(56.9%)보다 남자(57.0%)가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좋다」 응답은 30대(63.0%)에서 가장 많고, 「나쁘다」 응답은 60대(17.1%)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환경체감도 - 3)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표 2-30] 환경체감도 - 3) 토양(쓰레기, 농약, 폐기물 등으로 인한 오염)

(단위: %)

구 분	계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2018년	100.0	0.4	7.1	49.1	34.1	9.3
2020년	100.0	0.6	9.0	33.4	39.9	17.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0.3	13.6	35.4	36.9	13.9
북 부 권	100.0	0.6	6.5	20.3	36.8	35.8
서 남 부 권	100.0	0.9	6.2	39.9	44.7	8.3
< 성 별 >						
남 자	100.0	0.7	8.7	33.6	40.6	16.5
여 자	100.0	0.5	9.3	33.3	39.1	17.9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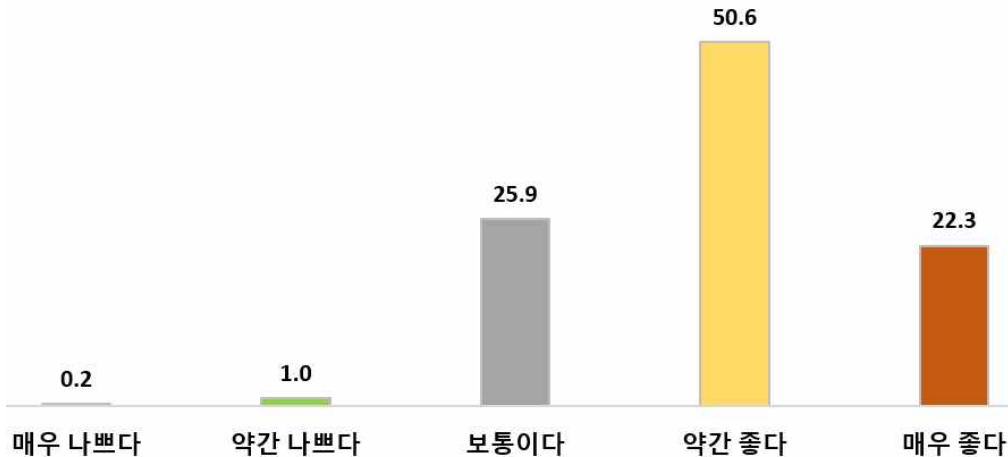
2-31 환경체감도 - 4) 소음, 진동(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소음, 진동 환경 「좋다」

• 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소음, 진동 환경에 대하여 「좋다」(약간 좋다+매우 좋다) 응답이 72.9%로 나타남.

- 「좋다」(72.9%) 응답이 「나쁘다」(1.2%)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좋다」 응답은 북부권 83.5%, 중부권 72.9%, 서남부권 66.1% 순으로 나타남.
- 남자(71.4%)보다 여자(74.6%)가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좋다」 응답은 70세 이상(77.4%)에서 가장 많고, 「나쁘다」 응답은 60대(2.0%)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환경체감도 - 4) 소음, 진동(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표 2-31] 환경체감도 - 4) 소음, 진동(자동차, 철도, 건설소음 등)

(단위: %)

구 분	계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2018년	100.0	0.3	2.6	43.7	31.5	21.9
2020년	100.0	0.2	1.0	25.9	50.6	22.3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0.2	1.6	25.3	52.6	20.3
북 부 권	100.0	0.5	0.9	15.1	41.7	41.8
서 남 부 권	100.0	0.0	0.5	33.4	54.4	11.7
< 성 별 >						
남 자	100.0	0.2	0.8	27.6	49.4	22.0
여 자	100.0	0.1	1.2	24.1	52.0	22.6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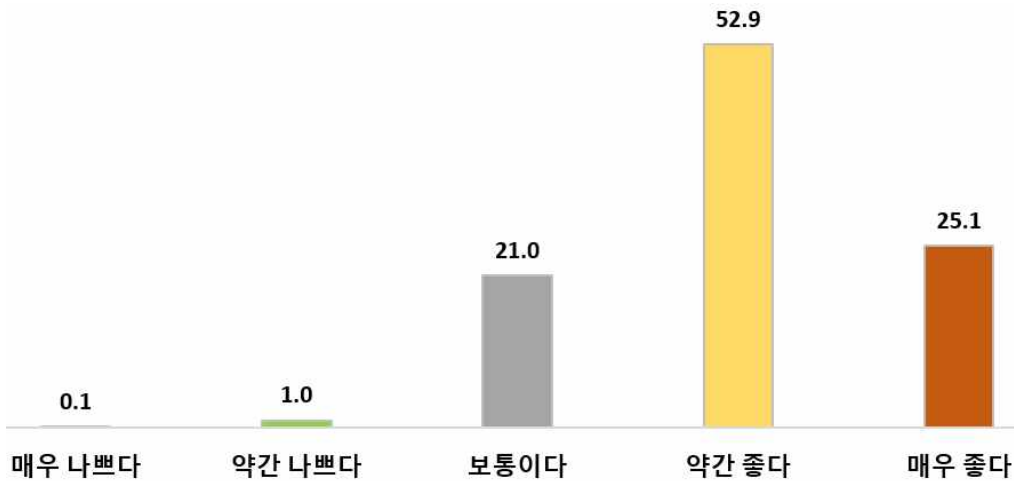
2-22 환경체감도 - 5) 녹지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

녹지 환경 「좋다」

• 자연경관 및 공원 등 녹지 환경에 대하여 「좋다」(약간 좋다+매우 좋다) 응답이 77.9%로 나타남.

- 「좋다」(77.9%) 응답이 「나쁘다」(1.1%) 응답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좋다」 응답은 북부권 91.8%, 서남부권 74.0%, 서남부권 72.7% 순으로 나타남.
- 남자(76.3%)보다 여자(79.7%)가 「좋다」고 느끼는 것으로 분석됨.
- 연령별로 「좋다」 응답은 30대(89.0%)에서 가장 많고, 「나쁘다」 응답은 40대(3.8%)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환경체감도 - 5) 녹지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



[표 2-32] 환경체감도 - 5) 녹지환경(자연경관 및 공원, 녹지 등)

(단위: %)

구 분	계	매우 나쁘다	약간 나쁘다	보통이다	약간 좋다	매우 좋다
2018년	100.0	0.6	2.8	51.5	27.1	18.0
2020년	100.0	0.1	1.0	21.0	52.9	25.1
< 지역 별 >						
중 부 권	100.0	0.2	2.6	24.5	51.7	21.1
북 부 권	100.0	0.0	0.3	7.9	38.2	53.6
서 남 부 권	100.0	0.0	0.0	26.0	63.3	10.7
< 성 별 >						
남 자	100.0	0.0	1.5	22.1	52.1	24.2
여 자	100.0	0.1	0.5	19.6	53.7	26.0

자료: 신안군 사회조사

